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명제적 태도 진술

박 정 일

【국문요약】 비트겐슈타인은 5.542에서 “A는 p라고 믿는다”가 “‘p’는 p라고 말한다”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실과 어떤 한 대상 사이의 짝짓기가 아니라, 사실들의 대상들 사이의 짝짓기를 통한 그 사실들 간의 짝짓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p’는 p라고 말한다”는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들의 대상들”에서 “사실들”과 “대상들”은 무엇이며, 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짝짓기가 문제되는가? 또한 『논리-철학 논고』에서 명제적 태도 진술은 뜻 있는 명제인가 아닌가? 더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판단 이론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 나는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해명한 사고의 개념과 또 이와 관련된 램지의 언급을 바탕으로 이 물음들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한편 “A는 p라고 믿는다”와 같은 명제적 태도 진술은 어떤 경우에는 뜻 있는 명제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논리-철학 논고』의 유아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철학 논고』에서 **모든** 명제적 태도 진술이 뜻 있는 명제라는 주장과 **모든** 명제적 태도 진술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둘 다 옳지 않다.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러셀, 『논리-철학 논고』, 명제적 태도, 판단 이론, 유아론

1. 들어가는 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이하, ‘『논고』’로 약칭함)에서 참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생각 중 하나는 심리철학과 관련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하다: 우리는 『논고』의 다음 언급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나 “A는 p라고 믿는다”, “A는 p라고 생각한다”, “A는 p라고 말한다”가 “‘p’는 p라고 말한다”의 형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실과 어떤 한 대상 사이의 짝짓기가 아니라, 사실들의 대상들 사이의 짝짓기를 통한 그 사실들 간의 짝짓기이다. (5.542)

“A는 p라고 판단한다”라는 명제의 형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의미한 것을 판단하는 일은 불가능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러셀의 이론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5.5422)¹⁾

이 짧은 언급들은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²⁾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언급들에 대한 여러 비트겐슈타인 연구가들의 해석들은 중요한 점에서 상충한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비트겐슈타인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5.54-5.541과 함께) 위의 언급에서 “A는 p라고 믿는다”와 같은 진술이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인지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1) 이 글에서는 『논고』의 번역으로 대부분 비트겐슈타인(2006a), 이영철 옮김을 따르고 있다.

2) 가령 업슨은 이 언급들에 대해 “거의 이해 불가능한 모호한 구절(a passage of almost impenetrable obscurity)”이라고 말한다. 참고: Urmsion(1956), p. 133, 업슨(1983), pp. 160-161.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진술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인가 아닌가?

둘째, 위의 언급에서 비트겐슈타인은 “A는 p라고 믿는다”가 “‘p’는 p라고 말한다”의 형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를 멈춰 서게 만드는 것은 “‘p’는 p라고 말한다”라는 표현이다. 도대체 “‘p’는 p라고 말한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논고』에서 “‘p’는 p라고 말한다” 형식의 명제는 진정한 명제인가 아니면 무의미한 사이비 명제인가?

셋째,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실과 어떤 한 대상 사이의 짝짓기가 아니라, 사실들의 대상들 사이의 짝짓기를 통한 그 사실들 간의 짝짓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 언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들의 대상들 사이의 짝짓기”에서 “사실들”과 “대상들”은 각각 무엇인가? 또 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짝짓기”가 중요한가?

넷째, 비트겐슈타인은 ““A는 p라고 판단한다”라는 명제의 형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의미한 것을 판단하는 일은 불가능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언급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설명은 “무의미한 것을 판단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어떻게 보여 주었는가?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이론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러셀의 (판단) 이론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의 요점은 무엇인가?

나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비트겐슈타인 연구가들이 어떤 해석을 제시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앤스컴, 코피, 피처 등은 『논고』에서 “A는 p라고 믿는다”와 같은 진술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이고 “ ‘p’ 는 p라고 말한다” 는 진정한 명제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케니와 퍼스직은 정반대의 해석을 제시한다(2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 ‘p’ 는 p라고 말한다” 가 『논고』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문제 삼게 된다. 특히 우리는 『논고』에서 “ ‘p’ 는 p라고 말한다” 와 “A는 p라고 말한다” 에서 “말한다” 의 의미가 상이하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며, “ ‘p’ 는 p라고 말한다” 가 생략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3절).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A는 p라고 생각한다” 와 “A는 p라고 믿는다” 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논고』의 “사고” 개념에 대한 해명과 이와 관련된 램지의 언급을 주목해야 한다(4절).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는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5절). 더 나아가 우리는 “A는 p라고 믿는다” 와 같은 진술이 『논고』의 유아론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앤스컴과 케니의 주장은 둘 다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6절).

2. 여러 학자들의 견해: 『논고』에서의 명제적 태도 진술

우리는 “A는 p라고 믿는다” 가 p의 진리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sim p$ 나 $\sim\sim p$ 와는 달리, “A는 p라고 믿는다” 는 p의 진리치에 따라 그 진리치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잘 알려져 있듯이, 러셀은 믿음, 의심함, 숙고함, 욕구함 등과 같은 정신적 현상을 “명제적 태도” 라고 불렀는데,³⁾ 이 글에서는 “A는 p라고 믿는다” 와 같은 진술을 명제적 태도 진술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3) 비트겐슈타인 (2006a), 이영철 옮김, p. 136, 러셀의 서론을 참고할 것.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명제적 태도 진술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 명제 형식에서 명제는 오직 진리 연산들의 토대로서만 명제 속에 나타난다. (5.54)

얼핏 보면, 하나의 명제는 다른 방식으로든 다른 한 명제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A는 p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A는 p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심리학의 어떤 명제 형식들 속에.

왜냐하면 표면상으로는 여기서 명제 p는 대상 A에 대해 모종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셀, 무어 등의) 현대 인식론에서 그 명제들은 실제로 그렇게 파악되어 왔다.) (5.541)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A는 p라고 믿는다”에서 “p”가 “진리 연산들의 토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A는 p라고 믿는다”가 뜻 있는 명제라면, 이는 어떤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여야 할 것이다. 또한 “A는 p라고 믿는다”가 “p”의 진리 함수가 아니라면, 명제적 태도 진술은 진정한 명제가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여야 한다는 『논고』의 주장(5.54)에 대한 반례가 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논고』에서 “A는 p라고 믿는다”는 진정한 명제인가 아닌가? 명제적 태도 진술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인가 아닌가?

이 물음에 대해 최초로 대답한 철학자는 램지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식 ‘A는 p라고 믿는다’가 아마도 의심스러운 것으로 제안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도 ‘p’의 진리 함수가 아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일 수도 있다.⁴⁾

이 짧은 언급에서 램지는 “A는 p라고 믿는다”가 ‘p’가 아닌 어떤 다른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앤스컴은 『논고』에서 “A는 p라고 믿는다”가 진정한 명제라고 주장한다. “A는 p라고 믿는다”는 “‘p’는 p라고 말한다”의 형식이며(5.542), 후자는 앤스컴에 따르면 진정한 명제이다.

만일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종류의 것이라면, 『논고』의 생각에 따르면, “‘p’는 p라고 말한다”(“‘p’ says that p”)는 참-거짓 극들(true-false poles)을 지나는 진정한(genuine) 명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참이나 거짓은 어떻게 명제 기호 ‘p’가 기술되기 위해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⁶⁾

앤스컴은 『논고』 3.1432(“복합적 기호 ‘aRb’가 a는 b에 대해 R이라는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가 아니라, “a가 b에 대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이 aRb임을 말한다.”)에 의거해서, “‘p’는 p라고 말한다”가 참일 수도 있고 또 거짓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p’는 p라고 말한다”에서 ‘p’는 “그 명제를 구성하는 기호들의 배열을 기술하는 한 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p’는 p라고 말한다”는

4) Ramsey (1931), p. 9, 각주.

5) 러셀은 『논고』 서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피상적인 논의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p’가 명제 기호로서 사실이고 이것은 실제 사실과 대응되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A는 p라고 믿는다”는 p의 진리함수가 아니라는 것만을 거론하고 있다. 참고: 비트겐슈타인 (2006a), 이영철 옮김, pp. 135-137.

6) Anscombe (1959), pp. 89-90.

“다양한 해석들을 허용한다.” 가령, “ ‘aRb’ 에서 ‘a’ 가 이 텔릭체로 쓰여 있고 ‘b’ 가 로마체로 쓰여 있다는 것은 aRb임을 말한다” 는 “ ‘aRb’ 는 aRb임을 말한다” 의 한 해석일 수 있지만, 거짓이다. 왜냐하면 3.1432에 따르면 ‘a’ 가 ‘b’ 에 대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이, 즉 ‘a’ 가 ‘R’ 의 왼쪽에 있고, ‘R’ 이 ‘a’ 와 ‘b’ 사이에 있고, 또 ‘b’ 가 ‘R’ 오른쪽에 있다는 것이 aRb임을 말하기 때문이다.⁷⁾

그런데 앤스컴은 명제적 태도 진술이 “ ‘p’ 는 p라고 말한다” 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언급이 아주 옳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해야 했던 것은 가령, ‘A는 p라고 믿는다’ 는 “p의 그림인(일 수 있는) 어떤 것이 A에서 나타나거나 A에 의해 산출된다.”⁸⁾이다.

블랙은 이러한 앤스컴의 주장에 대해서, 그녀는 “ ‘p’ 는 p라고 말한다” 가 어떻게 그 구성요소들의 진리함수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⁹⁾ 어떻게 “ ‘p’ 는 p라고 말한다” 가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일 수 있는지는 전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A는 p라고 믿는다” 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분석은 대충 이러하다: “A는 ‘p’ 를 발화하고 ‘p’ 는 p라고 말한다.”¹⁰⁾

7) Anscombe (1959), p. 89.

8) Anscombe (1959), p. 88.

9) Black (1964), p. 301.

10) Black (1964), p. 299. 더 정확하게 말하면, 블랙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A는 S를 발화하고 S는 p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S’ 는 ‘p’ 와 같은 인용 문장이다)이다. 마운스는 블랙의 이러한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운스의 분석은 이러하다: “A는 p라고 말한다 = A는 ‘p’ 를 말하고 ‘p’ 는 p라고 말한다.” (Mounce (1981), p. 85). 이러한 블랙과 마운스의 주장은 엄슨의 주장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엄슨은 비트겐슈타인이 “믿음을 문장의 발화(uttering)와 동일화한 것처럼 보인다.” 고 주장

한편 피처는 앤스컴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A는 p라는 생각을 갖는다” (피처는 이것을 명제 Q라고 부르고 있다)와 같은 명제들이 진정한 명제이며,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라고 주장한다.¹¹⁾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한 분석은 『논고』 5.542에 암시되어 있다. 그[비트겐슈타인]는 거기에서 그러한 명제들[Q와 같은 명제들]이 “ ‘p’ 는 p라고 말한다”의 형식”이라고 말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Q의 모든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의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 ‘p’ 는 p라고 말한다”라는 명제는 A가 존재하든 안 하든 참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 A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포함하는 명제 Q의 완전한 분석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비트겐슈타인이 일을 너무 쉽게 처리하는 과실을 범했으며, Q에 대한 그의 분석이 다음과 같은 두 명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i) A는 명제 기호 ‘p’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는 사고를 갖는다. (ii) 기호 ‘p’는 p를 말한다. 이제 보여야 할 것은 명제 (i)과 (ii)가 둘 다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매우 간단하게 말하려고 한다.¹²⁾

여기에서 피처는 Q가 (i)과 (ii)의 연언이고 또 (i)과 (ii)는 둘 다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Q는 진정한 명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피처는 “기호 ‘p’는 p를 말한다”가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라는 것을 앤스컴과 같이, 『논고』 3.1432에 의거해서 해명하려고 시도한다. 즉 피처에 따르면,

하고 있다(Urmson(1956), p. 133, 엄슨(1983), p. 161).

11) 피처 (1987), p. 169, pp. 148-149. Pitcher, G. (1964), p. 149, pp. 128-129.

12) 피처 (1987), pp. 169-170. Pitcher, G. (1964), p. 149.

“ ‘aRb’ 가 aRb를 말하는 것은 순전히 규약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호들을 그렇게 쓰고 해석하는 방식에 관한 우연의 사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명제 (ii)는 이 사실을 진술하는 기술 명제이며, 다른 기술 명제와 마찬가지로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라고 가정될 수 있다.”¹³⁾

요약하자면, 램지는 “A는 p라고 믿는다”가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앤스컴과 피처는 그것이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앤스컴과 피처는 『논고』 3.1432에 의거해서 “ ‘p’ 는 p라고 말한다”가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 블랙은 전혀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앤스컴과 피처는 5.542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불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처는 “ ‘p’ 는 p라고 말한다”가 순전히 규약의 문제이고 “우연의 사실”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명제가 “A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참”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케니는 이러한 앤스컴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이 “ ‘p’ 는 p라고 말한다”를 사이비-명제로 간주했다고 주장한다.

“ ‘p’ 는 p라고 말한다”는 비록 사이비-명제이지만, 물론 **옳**은 사이비 명제이다. 그것은 『논고』의 한 논제이다. 그것은 명제 ‘p’ 에 의해 보여진다. (4.022, 4.462)¹⁴⁾

케니에 따르면, 『논고』 4.022에 따르면, “명제는 자신의 내포적

¹³⁾ 피처 (1987), pp. 170-171. Pitcher, G. (1964), pp. 149-150.

¹⁴⁾ Kenny (1981), p. 145.

의미를 보여주지만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 15)에 “ ‘p’ 는 p라고 말한다” 는 사이비 명제이며, 따라서 “A는 p라고 믿는다” 와 같은 믿음 문장들도 사이비 명제이다. 그러면서 그는 『논고』에서 믿음 문장들은 “진정한 명제와 가짜 명제의 연언” 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철수는 잔디가 녹색이라고 믿는다는 명제는 (i*) 철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신적 요소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명제와 (ii*)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것들의 상호관계는 잔디가 녹색이라고 말한다는 사이비 명제와의 연언 명제라는 것이다.¹⁶⁾ 요컨대 케니는 Q가 (i)과 (ii)의 연언이라는 피처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i)가 진정한 명제라는 피처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ii)는 사이비 명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퍼스직(Perszyk)은 이러한 케니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논고』에서 명제적 태도 진술은 사이비 명제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외연성 논제가 중심적인 언어에 대한 일원화된(unitary) 생각을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제적 태도들의 표현들이 진정한 명제들이라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¹⁷⁾

퍼스직은 ‘A는 p라고 믿는다’ 에 대한 피처와 케니 방식의 연언적 분석—즉, ‘A는 “p” 라고 발화하고 “p” 는 p라고 말한다’ —이 오류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 “p” 는 p라고 말한다’ 는 “선형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cf. 2.225, 5.634)

15) 케니 (2001), p. 134. Kenny (1973), p. 101.

16) 케니 (2001), p. 134. Kenny (1973), p. 101.

17) Perszyk (1987), p. 121.

말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p’는 p라고 말한다”에서 **말하기**(saying)는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발화가능하지 않거나 표현가능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묘사의 형식을 표현하는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⁸⁾

3. “‘p’는 p라고 말한다”의 형식

『논고』 5.542에 따르면, “A는 p라고 믿는다”는 “‘p’는 p라고 말한다”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A는 p라고 믿는다”가 진정한 명제인지의 여부는 “‘p’는 p라고 말한다”가 진정한 명제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명백한 결론조차 부인하는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앤스컴에 따르면, 5.542의 그러한 주장은 아주 옳은 것은 아니다. 피처에 따르면, “A는 p라고 믿는다”는 사람 A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지만 “‘p’는 p라고 말한다”는 그렇지 않으므로 비트겐슈타인은 “일을 너무 쉽게 처리하는 과실”을 범했다. 마찬가지로 마운스 또한 “‘p’는 p라고 말한다”는 “A는 p라고 믿는다”와 동등할 수 없으며, “비트겐슈타인의 설명은 오도적으로 생략적”이라고 말한다.¹⁹⁾ 그러나 과연 이러한 앤스컴, 피처, 마운스 등의 주장은 옳은가?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18) Perszyk (1987), p. 120.

19) Mounce (1981), p. 84. 이영철 교수는 (비트겐슈타인이 명제적 태도들을 다룰 때) “‘A’의 인칭에 따른 차이는 구별되어 고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운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이영철 (2016), p. 267 각주, p. 268 각주, p. 274).

『논고』 5.542에서 “A는 p라고 믿는다”와 동등한 것은 “‘p’는 p라고 말한다”의 **형식**의 명제이지 명제 “‘p’는 p라고 말한다”가 아니다. 피처와 마운스는 이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²⁰⁾

둘째, “A는 p라고 말한다.”에서의 “말한다”와 “‘p’는 p라고 말한다.”에서의 “말한다”는 의미가 **상이하**다. 만일 그것들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피처와 마운스 등의 주장은 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다음의 두 문장에 대해 생각해 보자.

- (1) A는 p라고 말한다. (A says p.)
- (2) ‘p’는 p라고 말한다. (‘p’ says p.)

과연 (1)의 ‘말한다’와 (2)의 ‘말한다’는 의미가 동일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물음에 대해 숙고해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1)의 “말하다”는 “발화하다”와 관련이 있다. 즉 발성 기관이 있는 사람이 p라고 말한다. 물론 발성 기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속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엄밀하게 말하면 (1)의 “말하다”는 “발화하다”와 동일하지 않다. 즉 우리는 (1)을 다음과 구분해야 한다.

- (3) A는 “p”라고 말한다. (A says “p”)

²⁰⁾ 그래서 마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헨리는 비가 오고 있다고 믿는다’가 ‘“비가 오고 있다”는 비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와 동등할 수 있는가?” (Mounce (1981), p. 85).

(3)의 “말하다”는 “발화하다”와 동일하다. 이제 다음과 같이 묻도록 하자: (2)에서 “말하다”는 (1)과 (3) 중 어느 “말하다”와 동일한가? 가령 (A가 p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p’는 p라고 말하는가? ‘p’는 p라고 속으로 말하는가? 또는 ‘p’는 “p”라고 발화하는가?

(1)과 (3)의 ‘말하다’는 주체 A가 발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어느 누구도 (2)의 ‘말하다’의 주체가 ‘p’라고는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2)의 ‘말하다’의 주체가 ‘p’라고 간주하는 한 (2)는 그 자체로는 이해 불가능한 표현이 되어버린다. 이제 (2)의 ‘말하다’가 (1)과 (3)의 ‘말하다’와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2)가 걸보기와는 달리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p’는 p라고 말한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논고』의 다음 두 언급을 주의 깊게 읽으면 주어진다 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참된 명제들을 가지고 의사소통해 온 것처럼, 우리들은 거짓된 명제들을 가지고도—다만 그 명제들은 거짓되게 뜻하여져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의사소통할 수 없을까? 못한다! 왜냐하면 만일 사정이 우리가 어떤 한 명제에 의해 말하는 바와 같다면, 그 명제는 참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p”를 가지고 $\sim p$ 를 뜻한다면, 그리고 사정이 우리가 뜻하는 바와 같다면, 이 새로운 파악 방식에서 “p”는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4.062)

그러나 “p”라는 기호와 “ $\sim p$ ”라는 기호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 \sim ”이라는 기호에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4.0621a)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거짓 명제들로, 그것들이 거짓이라고 뜻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 대답은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새로운 파악 방식에서**” 그 명제들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이다.

이제 “ p ” 라는 기호와 “ $\sim p$ ” 라는 기호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언급을 주목하자. 기호는 “실로 자의적” (3.322)이며, 기호 “ p ” 와 기호 “ $\sim p$ ” 는 “**파악 방식**” 에 따라 각각 p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 p ” 는 파악 방식에 따라 $\sim p$ 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q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 ‘ p ’ 는 p 라고 말한다” 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요컨대 “ ‘ p ’ 는 p 라고 말한다” 는 진정한 명제일 수 있다.

다음으로, “**만일 우리가 “ p ”를 가지고 $\sim p$ 를 뜻한다면, 그리고 사정이 우리가 뜻하는 바와 같다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언급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 표현은 위의 언급에서는 “**만일 사정이 우리가 어떤 한 명제에 의해 말하는 바와 같다면**” 을 다시 해명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표현들에 이어서 “ “ p ” 라는 기호와 “ $\sim p$ ” 라는 기호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의 표현들에서는 “우리” 라는 주어(주체)가 등장하지만, 후자에서는 “우리” 라는 주체가 생략되고 기호 “ p ” 와 “ $\sim p$ ” 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논고』 4.062와 4.0621에서는 다음은 동일하다.

- (2) 기호 ‘ p ’ 는 p 라고 말한다.
- (4) 우리는 기호 ‘ p ’ 를 가지고 p 라고 말한다.
- (5) 우리는 기호 ‘ p ’ 를 가지고 p 라고 뜻한다.

위의 맥락에서 (2), (4), (5)가 동일하다면, 이로부터 우리는 (2), (4), (5)가 다음과 동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6) 기호 ‘p’ 는 p라고 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결론이 옳다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의 다음 언급으로부터 알 수 있다.

“p”에 대한 “나는 p라고 믿는다”의 관계는 p에 대한 ‘p’는 p라고 뜻한다(besagt)’의 관계에 비교될 수 있다: 나가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p”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²¹⁾

이 언급은 「노르웨이에서 무어에게 구술한 단상들」(1914년 4월)에 나오는 것이며, 『논고』 5.542와 5.5421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besagt”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독일어 단어 “besagen”은 “의미하다”나 “뜻하다”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논고』 5.542의 “‘p’는 p라고 말한다(‘p’ sagt p)”와 위의 언급에 나오는 “‘p’는 p라고 뜻한다(‘p’ besagt p)”는 뜻이 같다.²²⁾

물론 (2)와 (5)가 동일하다는 것은 『논고』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다”와 “뜻하다”가 동일하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4)와 (5)에서 주어가 “우리”라는 점을 주목할

21) Wittgenstein (1961), p. 118.

22) 그렇기 때문에 “A는 p라고 말한다 = A는 ‘p’를 말하고 ‘p’는 p라고 말한다”로 분석된다는 블랙(Black (1964), p. 299)과 마운스(Mounce (1981), p. 85)의 주장은 옳지 않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A는 p라고 말한다”의 “말한다”와 “‘p’는 p라고 말한다”의 “말한다”가 의미가 상이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2)는 생략적 표현이다.²³⁾ 따라서 우리가 아니라 주체 S의 파악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2)는 “S는 기호 ‘p’를 가지고 p라고 말한다(뜻한다)”와 같게 될 것이다.

4. 『논고』의 사고 개념과 명제적 태도 진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p’는 p라고 말한다”가 생략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²⁴⁾ 우리가 p라고 말하듯이, 또 A가 p라고 말하듯이, ‘p’가 p라고 말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이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p’는 p라고 말한다”는 파악 주체 S에 대해서 “S는 ‘p’를 가지고 p라고 뜻한다(말한다)”와 같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p’는 p라고 말한다”가 진정한 명제일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체 S의 파악 방식에 따라 ‘p’는 가령 ~p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의 명제적 태도 진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7) A는 p라고 생각한다.
- (8) A는 p라고 믿는다.

23) 그렇기 때문에 “‘p’는 p라고 말한다”가 “기호의 의미에 관한 주장의 형식”이라는 Cohen (1974) p. 442의 주장은 오류이다.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이 “모든 명제적 태도들이 “‘p’는 p라고 말한다 ‘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러셀의 주체(subject)라는 퍼즈직(Perszyk (1987), p. 116)의 주장도 옳지 않다.

24) 물론 그것은 마운스(Mounce (1981), p. 84)가 주장하듯이 “오도적인” 생략적 표현이 아니다.

5.542에 따르면, (7)과 (8)은 모두 (2)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7)과 (8)의 형식은 (4), (5)와 같다. 그렇다면 (7)과 (8)은 각각 어떻게 (4)와 (5)의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논고』에서 사고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말끔이 지적하고 있듯이, 『논고』에서 그림 이론은 명제들이나 명제 기호들에 적용되기 전에 먼저 사고들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림 이론은 명제 기호들과 관련하여 거론되기 전에 사고들과 관련하여 논의된다.²⁵⁾ 또한 케니가 지적하고 있듯이, 『논고』에서 사고는 두 부분(3-4.002, 5.54-5.5423)으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다.²⁶⁾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 (3)이고, “참된 사고들의 총체는 세계의 그림” (3.01)이다. “명제에서 사고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게 표현” (3.1)되며, 명제 기호는 “우리가 사고를 표현하는 데 쓰는 기호” 이고 명제는 “세계와 투영 관계에 있는 명제 기호” (3.12)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와 명제 기호,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명제 속에서 사고는 명제 기호의 요소들이 사고의 대상들과 대응하도록 표현될 수 있다. (3.2)

이러한 요소들을 나는 “단순 기호들” 이라고 부르고, 그 명제는 “완전히 분석되었다” 고 부른다. (3.201)

명제 속에서 적용된 단순 기호들을 일컬어 이름이라고 한다. (3.202)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 속에서 사고는 명제 기호의 요소들

²⁵⁾ Malcolm (1986), p. 64.

²⁶⁾ Kenny (1981), p. 140.

이 사고의 대상들과 대응하도록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고의 **대상들**”은 우리가 어떤 것(가령, 킹스 칼리지에 불이 났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대상**(킹스 칼리지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뜻하지 않는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급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러셀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논고』 출판에 앞서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사고(Gedanke)는 단어들로 이루어지는가?” 비트겐슈타인은 1919년 8월 19일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단어들과 같은 실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관계를 갖고 있는 심리적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²⁸⁾

마찬가지로 러셀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러나 사고(Gedanke)는 사실(Tatsache)이다: 그것의 구성요소들(constituents)과 구성부분들(components)은 무엇이며, 그림 그려진 사실(the pictured Tatsache)의 구성요소들과 구성부분들에 대한 그것들의 관계란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저는 사고(thought)의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27) 케니가 지적하듯이, 3.2에서 “사고의 대상들”이라는 표현은 애매하다. 그것은 사고를 구성하는 대상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고가 관여하는 대상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Kenny (1981), pp. 143-144). 케니는 『논고』와 『원논고』(Prototractatus)의 해당 언급들을 비교하면 전자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3.2에서 “사고의 **대상들**”은 사고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다. 한편 비트겐슈타인은 『청색책』에서 “사고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A가 킹스 칼리지가 불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킹스 칼리지가 불타고 있다는 사실이나 상황을 뜻한다. 참고: 비트겐슈타인 (2006b), pp. 62-63.

28) Wittgenstein (1961), p. 118.

그것이[사고가] 언어의 단어들에 대응하는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지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고의, 그리고 그림 그려진 사실의 구성요소들의 관계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이를] 발견하는 것은 심리학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²⁹⁾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을 종합하면, 『논고』에서 사고는 심리적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그러한 구성요소들은 언어의(또는 명제의) 단어들(이름들)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 속에서 사고는 명제 기호의 요소들이 사고의 대상들과 대응하도록 표현될 수 있다.” (3.2)에서 “명제 기호의 요소들”은 “언어의 단어들”이고 “사고의 대상들”은 사고를 이루는 “심리적 구성요소들”이다. 말하자면, (이영철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비트겐슈타인에게 사고는 일종의 언어였다. 그는 1916년 9월 12일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왜 내가 사유(Denken)와 말(Sprechen)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분명해진다. 사유는 일종의 언어(Sprache)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고(Gedanke)도 명제의 논리적 그림이며, 따라서 마찬가지로 일종의 명제이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논고』에서 “사고는 뜻이 있는 명제이다.” (4)로 표현되어 있다. 사고는 뜻이 있는 명제이고, “명제들의 총체가 언어” (4.001)이듯이, 사고들의 총체 또한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언어—입말 언어, 글말 언어—와 대조해서 우리는 사고들의 총체를 정신적 언어라고 부를 수

²⁹⁾ Wittgenstein (1961), p. 118.

³⁰⁾ Wittgenstein (1961), p. 82, 참고: 이영철 (2016), p. 269.

있다.³¹⁾ 둘째, 우리는 『논고』에서 대상이 의미인 이름(3.203), 이름들의 연쇄인 요소 명제(4.22), 그리고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인 명제(5)로 구분되는 것과 같이, 사고에 대해서도, 심리적 구성요소, 구성요소들의 연쇄인 사고(이를 “요소 사고”라고 부르자), 그리고 요소 사고들의 진리함수인 사고를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논고』에서 명제와 명제 기호로 구분되는 것과 같이,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와 사고 기호를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명제는 사고에, 그리고 명제 기호는 사고 기호에 대응된다. 그리하여 “적용된, 생각된 명제 기호가 사고이다.” (3.5)

그러나 비록 『논고』의 ‘사고’ 개념이 해명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최초의 물음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7)과 (8)은 각각 (4)와 (5)의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더구나 (내가 아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 『논고』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저작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은 5.542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해명한 바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결정적인 실마리를 램지의 논문 “사실들과 명제들(Facts and Propositions)” (1927)에서 찾을 수 있다. 램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이름들에 의해 사유자(thinker)는 우리가 원자 문장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a, R, 그리고 b가 그의 언어와 관련해서 단순한 것들이라면, 즉 그가 이름들을 갖고 있는 사례들의 유형들로 되어 있다면, 그는 그의 마음속에 a, R, 그리고 b에 대한 이름들을 연결시키고 믿음의 느낌에 의해 동반되게 함으로서 aRb라고 믿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진술은

31) 비트겐슈타인은 『청색책』에서 “정신적 언어”와 “말의 형태로 된 언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 비트겐슈타인 (2006b), p. 78.

너무 단순하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은 bRa 보다 aRb 에 적절한 방식으로 통합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R 의 이름은 낱말 ‘ R ’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 aRb ’를 씀으로써 ‘ a ’와 ‘ b ’ 사이에 만드는 관계라고 말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관계가 ‘ a ’와 ‘ b ’를 통합하는 뜻은 그것이 aRb 라는 믿음인지 또는 bRa 라는 믿음인지를 결정한다.³²⁾

이 논문의 말미에서 램지는 “실용주의적 경향”을 띤 주장들을 제외하면 자신이 이 논문에서 말한 것은 모두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연유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³³⁾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생각은 바로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것이다. 이제 “ A 는 aRb 라고 믿는다”가 위의 인용문에서 어떻게 해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램지는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9) A 는 A 의 마음속에 a , R , 그리고 b 에 대한 이름들을 연결시키고 믿음의 느낌에 의해 동반되게 한다.

또한 “믿음의 느낌(feeling of belief)”에 대해서 램지는 “느낌(feeling)”이라는 용어 대신에 예컨대 “특정한 성질(specific quality)”, “주장의 작용(act of assertion)”을 대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³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9)에서 우리는 세 가지 과정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름들

32) Ramsey (1931), p. 145.

33) Ramsey (1931), p. 155.

34) 램지에 따르면, “믿지 않음의 느낌(feeling of disbelief)”에서 ‘느낌’은 “부정의 작용(act of denial)”으로 대체될 수 있다. 참고: Ramsey (1931), p. 145, 각주 2.

에 대응하는 심리적 구성 요소들이 결합하여 사고 기호가 형성되는 과정. 둘째, 사고 기호가 “세계와 투영 관계에 있는” 사고가 되는 과정. 셋째, 이와 함께 믿음의 느낌(작용)이 동반되는 과정. 그리하여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 A는 ‘aRb’ 와 함께 믿음의 느낌(작용)을 동반하고 aRb라고 뜻한다.

(또는 “A는 믿음의 느낌(작용)이 동반되는 ‘aRb’ 와 함께 aRb라고 뜻한다.”)

요약해 보자: 5,542에 따르면, “A는 p라고 믿는다” 는 “ ‘p’ 는 p라고 말한다” 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 ‘p’ 는 p라고 말한다” 는 A의 경우(A의 파악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 “A는 기호 ‘p’ 를 가지고 p라고 뜻한다(말한다)” 와 같다. 이제 믿음의 경우, “ ‘p’ 를 가지고” 는 “믿음 작용(느낌)이 동반되는 ‘p’ 와 함께” 를 뜻한다. 다시 말해 “A는 p라고 믿는다(생각한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는 “A는 믿음 작용(생각 작용, 기대 작용, 소망 작용)이 동반되는 ‘p’ 와 함께 p라고 뜻한다” 와 대등하다.³⁵⁾

35) 『논고』 5.542에 대한 해명에서 램지의 견해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최초로 주목한 학자는 설리반이다(이 점을 알려준 심사위원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드린다). 그는 램지의 언급들을 인용하고 분석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에 관해서 ‘그는 aRb라고 믿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a, R, 그리고 b의 이름들의 한 조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각주에서 “믿음의 느낌과 함께” 라는 단서를 덧붙이고 있다(Sullivan (2005), p. 64). 나는 (10)과 설리반의 해명이 거의 대등하다고 생각한다.

5. 명제적 태도 진술과 러셀의 판단 이론

앞에서 우리는 『논고』에서 “A는 p라고 믿는다”는 “A는 믿음의 작용이 동반되는 ‘p’와 함께 p라고 뜻한다”와 대등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러셀의 판단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러셀의 판단 이론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의 요점은 무엇인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셀의 판단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논고』 집필 이전 당시 러셀의 판단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기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는 거의 동일하다.³⁶⁾ 먼저 “a는 b를 사랑한다”를 “aLb”로 기호화하고, ‘판단하다’를 ‘J’로 기호화하기로 하자. 그러면 러셀의 1903년, 1910년, 1913년 판단 이론에서 “S는 a가 b를 사랑한다고 판단한다”는 각각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J(S, aLb)$$

$$J(S, a, L, b)$$

$$J(S, a, L, b, xRy)$$

1903년 『수학의 원리들』(Principles of Mathematics)에서 러셀은 판단은 주체와 명제 간의 이항 관계라고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S는 a가 b를 사랑한다고 판단한다”는 “J(S, aLb)”로 기호화된다. 그러나 그는 이 생각을 밀고나갈 수 없었는데, 무

36) 보다 더 자세하게 논의로는 Hanks (2007)을 참조할 것.

엇보다도 거짓 명제를 판단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령 aLb 가 거짓이라고 하자. 그러면 aLb 에 해당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³⁷⁾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셀은 1910년 논문 「참과 거짓의 본성에 관하여」(“On the Nature of Truth and Falsehood”)와 『수학 원리』(Principia Mathematica, 1910-1913)에서 다중 관계 판단 이론(the multiple relation theory of judgment)을 제시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S는 a가 b를 사랑한다고 판단한다”에서 “a는 b를 사랑한다”는 ‘a’, ‘사랑한다’ ‘b’로 나누어지며, 그리하여 “S는 a가 b를 사랑한다고 판단한다”는 “ $J(S, a, L, b)$ ”로 기호화된다.³⁸⁾

그러나 이러한 다중 관계 판단 이론은 결정적인 난점을 지니고 있다. 즉 “ $J(S, a, L, b)$ ”는 “S는 a가 b를 사랑한다고 판단한다”와 “S는 b가 a를 사랑한다고 판단한다”를 둘 다 뜻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³⁹⁾ 러셀은 1913년

37) 이 점에 대해 러셀은 『철학의 문제들』(191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판단한다나 믿는다** 내에 수반되는 관계는 만약 거짓 가능성이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다면 두 개의 항 사이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항 사이의 관계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만약 오델로가 데스테모나는 카시오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오델로는 그의 마음 속에 하나의 단일한 대상, 즉 “카시오에 대한 데스테모나의 사랑”이나, “데스테모나가 카시오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는 어떤 마음과도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거짓이 있어야만 한다고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논리적으로 논박될 수 없을지라도, 가능하다면 비켜서 피해야 할 이론이다.” (버트런드 러셀 (1989), p. 135)

38) 참고: Russell & Whitehead (1910), pp. 43-44.

39) 러셀은 『철학의 문제들』(1912)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뜻”(sense)과 “지시 방향”(direction)을 제시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판단하는 행위에서 관계는 어떤 “뜻”이나 “지시 방향”을 갖는다는

수고 『지식의 이론』(Theory of Knowledge)—이 저작의 출판을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혹독한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⁴⁰⁾—에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는다. 그의 새로운 해결책에 따르면, “S는 a가 b를 사랑한다고 판단한다”는 “J(S, a, L, b, xRy)”로 기호화되는데, 이때 xRy는 “a는 b를 사랑한다”의 논리적 형식이다.⁴¹⁾ 이 당시 러셀에게 논리적 형식은 “아주 일반적인 사실들, 즉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⁴²⁾이었다.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비트겐슈타인은 5.541에서 러셀이 “A는 p라고 믿는다”와 같은 명제를 “명제 p가 대상 A에 대해 모종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5.542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실과 어떤 한 대상 사이의 짝짓기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트겐슈타인은 “A는 p라고 믿는다”를 대상 A와 명제 또는 사실 p와의 관계로, 또는 대상 A와 사실 p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로 다루는 러셀의 판단 이론을 비판적으로 바라

것이 보여질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관계는 그 대상들을 어떤 **순서**(order)로 배열할 것이며, 그 순서는 문장 속의 단어들의 순서에 의해 드러난다. (...) 카시오가 데스테모나를 사랑한다는 오델로의 판단은 데스테모나가 카시오를 사랑한다고 하는 판단과는 다르다. 물론 그 판단은 같은 구성 요소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판단하고 있음의 관계가 두 경우에 있어 서로 다른 순서로 구성 요소들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버트런드 러셀 (1989), p. 136) 그러나 이러한 “뜻” 또는 “지시 방향” 개념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 만일 그것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D로 기호화한다면, 러셀에게 옳은 것은 “J(S, a, L, b)”가 아니라 “J(S, a, L, b, D)”가 될 것이다.

40) 비트겐슈타인은 1913년 7월 22일 편지에서 러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생님의 판단 이론에 대한 저의 반대가 선생님을 마비시켰다니 아주 유감입니다. 저는 그것은 올바른 명제 이론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Wittgenstein (1961), p. 121)

41) 참고: Russell (1984), pp. 116-117.

42) 참고: Hanks (2007), p. 126. Russell (1984), p. 114, p. 129. 박정일 (2015), pp. 103-106.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5.542에서 “사실들의 대상들 사이의 짝짓기를 통한 그 사실들 간의 짝짓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5.5422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명제적 태도 진술을 생각해 보자.

(11)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현명하다고 믿는다.

(12) 플라톤은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11)은 참이지만, 플라톤은 나폴레옹이나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12)는 거짓이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에 다음은 무의미하다.

(13)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동일하다고 믿는다.

(14) 플라톤은 “이 탁자 펜대들 그 책”(this table penholders the book)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⁴³⁾는 “이 탁자 펜대들 그 책”⁴⁴⁾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명제가 아니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를 어떻게 해명할지를 생각해 보자.

앞에서 우리는 『논고』에서 “A는 p라고 믿는다”는 “A는 믿음 작용이 동반되는 ‘p’와 함께p라고 뜻한다”와 대등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p’가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나 “이 탁자 펜대들 그 책”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43) 참고: 『논고』, 5.473, 5.4733.

44) 참고: Wittgenstein (1961), p. 98.

- (15) A는 믿음 작용이 동반되는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와 함께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고 뜻한다.
- (16) A는 믿음 작용이 동반되는 “이 탁자 펜대들 그 책”과 함께 이 탁자 펜대들 그 책이라고 뜻한다.

명백하게도 (15)와 (16)은 문법에 맞지 않는 무의미한 문장이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와 “이 탁자 펜대들 그 책”에 믿음 작용이 동반된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또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고 뜻한다”와 “이 탁자 펜대들 그 책이라고 뜻한다”도 무의미하다. 요컨대 “A는 p라고 믿는다”가 뜻 있는 명제이기 위해서는 p는 뜻 있는 명제여야만 한다.⁴⁵⁾ p가 무의미한 경우, “A는 p라고 믿는다”는 무의미하다. 반면에 러셀의 판단 이론에서는 $J(S, a, R, b)$ 에서 알 수 있듯이, a, R, b로부터 어떻게 뜻 있는 명제가 형성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는 $J(S, a, R, b, xRy)$ 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어떤 관계도 사물과 (논리적) 형식 간에 성립할 수 없다.⁴⁶⁾ 그렇기 때문에 “A는 p라고 판단한다”라는 명제의 형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의

45)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는 “A는 p라고 믿는다”로부터 $p \vee \sim p$ 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1913년 6월 러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저는 선생님의 판단 이론에 대한 저의 반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A는 (가령) a는 b와 관계 R에 있다고 판단한다”라는 명제로부터, 만일 올바르게 분석된다면, “ $aRb \vee \sim aRb$ ”라는 명제들이 어떤 다른 전제의 사용 없이도 직접 따라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조건은 선생님의 이론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Wittgenstein (1961), p. 121)

46) 이 점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명제의 형식인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으며, 한 형식의 이름인 어떤 이름도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어떤 경우들에서 사물들 간에 성립하는 한 관계가 때때로 형식들과 사물들 간에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러셀의 판단 이론에 반한다.” (Wittgenstein (1961), p. 99)

미한 것을 판단하는 일은 불가능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러셀의 이론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5.5422)

그러면 이제 5.541과 5.542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앞에서 우리는 “A는 p라고 말한다(믿는다, 생각한다)”가 “A는 발화 작용(믿음 작용, 사유 작용)이 동반되는 ‘p’와 함께 p라고 뜻한다”와 대등함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p’에는 발화 작용, 믿음 작용, 사유 작용 등 다양한 것이 동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p’는 입말 또는 글말 명제 기호일 수도 있고, 믿음과 사유 작용의 정신 명제 기호(사고 기호)일 수도 있다. 그러한 ‘p’는 사실을 그리는 뜻 있는 명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명제 기호(사고 기호)로서 하나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A는 p라고 말한다”, “A는 p라고 믿는다”, “A는 p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명제적 태도 진술이 뜻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로서의 명제 기호 ‘p’를 이루는 대상들과 그것이 그리는 사실을 이루는 대상들 간의 짝짓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짝짓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와 “책 켤대 의자”와 같이) 그러한 명제적 태도 진술은 무의미하다.⁴⁷⁾

또한 ‘p’가 뜻 있는 명제인 경우, p라고 뜻하는 ‘p’를 실제로 발화하거나 p라고 뜻하는 ‘p’에 동반되는 믿음 작용 또는 사유 작용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한 믿음 작용은 사실로서의 명제 기호 ‘p’와 그것이 그리는 사실을 대응시킨다. 즉 그러한 믿음 작용을 통해 “사실들 간의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이는 결국 “A는 p라고 믿는다”라는 명제 기호로

47) 그리고 『논고』에서는 러셀 식의 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램지가 지적하고 있듯이(앞 절 참조), aRb가 요소 명제이고, a, R, b가 대상이라면, 가령 “R의 이름은 낱말 ‘R’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aRb’를 씀으로써 ‘a’와 ‘b’ 사이에 만드는 관계”이다.

서의 사실과 실제로 A에게서 그러한 믿음 작용이 일어났다는 사실 간의 짝짓기와도 같다. 그러한 짝짓기가 성립하면 그 명제적 태도 진술은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그 반대의 짝짓기가 성립하면)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고』에서 (12)는 거짓이다.⁴⁸⁾

6. 명제적 태도 진술과 유아론

앞에서 우리는 『논고』에서 명제적 태도 진술이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앤스컴과 피처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케니와 퍼스직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느 쪽 주장이 옳은가? 이미 우리는 어떤 명제적 태도 진술은 뜻이 있는 진술이고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케니와 퍼스직의 주장은 옳지 않다. 즉 **모든** 명제적 태도 진술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논고』에서 **모든** 명제적 태도 진술은 뜻이 있는 진술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논고』에 따르면, “p가 동어반복이라면, “A는 p가 사실임을 안다”는 뜻이 없다 (sinnlos).” (5.1362) 즉 명제적 태도 진술 “A는 p라고 믿는다”는 뜻이 없을 수 있는데, p가 동어반복이나 모순인 경우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p가 뜻 있는 명제인 경우이다.

48) 코피는 “A는 p라고 생각한다”에서 짝짓기 되는 두 사실은 “A라는 사실”과 “p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Copi (1958), p. 104) 그러나 이러한 코피의 주장은 기껏해야 부분적으로 옳을 뿐이다. 『논고』의 유아론에 따르면 “나”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 대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또한 Favrholt (1964), p. 561은 5.542에서 짝짓기 되는 두 사실은 명제 기호 p와 사고 ‘p’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다시 말해, p가 뜻 있는 명제일 때 “A는 p라고 믿는다”는 모두 뜻 있는 명제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논고』의 유아론과 관련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유아론을 받아들인다. “요컨대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다만 그것은 말해질 수는 없고, 드러날 뿐이다.” (5.62) 이 언급에서 주목할 것은 유아론의 주장은 보여질 뿐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리하여 무의미하다는 것이다.⁴⁹⁾ 그렇다면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은 『청색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직 나 자신의 경험만이 진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나에게 존재한다: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고통을 느끼고 등등을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이것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고 그들은 그들이기 때문에.”⁵⁰⁾

밀접하게 유사한 그러한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다음의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다: “나는 내가 개인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고,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 사실 유아론자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다른 사람이

49) 혹자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데, 이와 동시에 이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무의미할 수 있는가?”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유아론이 뜻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 말은 유아론이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다음 언급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만일 모든 동어반복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p \supset p . \equiv . p \vee \sim p . \equiv . \sim(p . \sim p)$!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아무런 뜻도 지니고 있지 않다!” (Wittgenstein (1979), p. 137)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동어반복들이 모두 동일한 뜻을 지니는데, 다시 “아무런 뜻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50) 비트겐슈타인 (2006b), p. 85.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믿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와 같은 추정의 표현이 어떻게 뜻을 가질 수 있는가?” 51)

요컨대 유아론이란 “오직 나 자신의 경험만이 진정한 것”이며, “나는 내가 개인적 경험들[즉 나의 의식 상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고,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아론의 주장이 명제적 태도 진술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17) 오직 나만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

(18) 나는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

(17)은 명제적 태도 진술이지만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 물론 『논고』의 유아론자는 (17)을 전적으로 옳지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18)은 경험적 진술로 파악될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 진술로 파악될 수도 있다.⁵²⁾ 『논고』의 유아론자는 (18)을 형이상학적 진술로 파악한 후에 (18)이 무의미하다고 간주할 것이다. 요컨대 “A는 p라고 믿는다”는 ‘p’가 “직접적인 경험을 기술”⁵³⁾하거나 내적인 경험을 보고하는 명제인 경우 무의미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만 말할 수

51) 비트겐슈타인 (2006b), p. 89.

52) 이 점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청색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관해 골치를 썩이는 가운데, 우리는 “나는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란 우리의 형이상학적 명제를 “우리는 다른 인물의 이에서 고통을 가질 수 없다(일반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란 경험적 명제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 (2006b), p. 90)

53) Wittgenstein (1979), p. 67.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은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 나 “나는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와 같은 것이 무의미한 명제라고 간주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한다.⁵⁴⁾ 요약하면, “A는 p라고 믿는다”의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서 ‘A’는 ‘나’, ‘너’, ‘그’, ‘우리’, ‘소크라테스’ 등일 수도 있고, ‘p’는 외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명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직접적 경험을 기술하는 명제일 수도 있다. ‘A’가 ‘나’이고 ‘p’가 직접적 경험을 기술하는 명제일 때 명제적 태도 진술은 무의미한 명제일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논고』에서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논고』에서는 어떤 명제적 태도 진술은 뜻 있는 명제이고 어떤 명제적 태도 진술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램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명제적 태도 진술은 뜻 있는 명제일 수 있다. 또한 『논고』에서 모든 명제적 태도 진술이 뜻 있는 명제이고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라는 앤스컴과 피처의 주장은 옳지 않다.

7. 맺는 말

지금까지 나는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명제적 태도 진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해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상 이에 대한 논

54)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이후에 유아론에서 옳은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나는 치통을 갖고 있다”와 “그는 치통을 갖고 있다”의 상이한 문법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이는 그 진술들이 상이한 검증들을 지닌다는 사실에서,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나는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묻는 것은 유의미하지만 전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유아론자는 이 둘이 상이한 단계(level)에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옳다.” (Wittgenstein, L. (1979), p. 21)

의는 비트겐슈타인 연구자들 사이에서 거의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명시적인 전거가 없기 때문에, 이 글은 다소 논쟁적인 측면을 지닐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심리철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의 주장과 근거를 분명하게 다시 정리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나는 “ ‘p’ 는 p라고 말한다” 는 문자 그대로 파악하면 이해 불가능한 문장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그 문장에서의 ‘말하다’ 는 “A는 p라고 말한다” 나 “A는 ‘p’ 라고 말한다” 의 ‘말하다’ 와는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 그리하여 나는 “ ‘p’ 는 p라고 말한다” 가 생략적 표현이며, 이는 파악 주체 S에 대해서, “S는 ‘p’ 를 가지고 p라고 말한다(뜻한다)” 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다음으로 나는 “A는 p라고 믿는다(생각한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는 “A는 믿음 작용(생각 작용, 기대 작용, 소망 작용)이 동반되는 ‘p’ 와 함께 p라고 뜻한다” 와 대등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해명한 사고의 개념과 또 이와 관련된 램지의 언급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리하여 “A는 p라고 믿는다(말한다, 생각한다)” 가 “ ‘p’ 는 p라고 말한다” 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5.542의 언급은 이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에서는 ‘p’ 가 동어반복일 경우 “A는 p라고 생각한다” 는 뜻이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p라고 뜻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p’ 가 가령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 와 같은 무의미한 문장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러셀의 판단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러셀의 다중 관계 판단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 $J(S, a, R, b)$ 는 가령 그러한 무의미한 문장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막지 못한다. “A는 p라고 믿는다”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제 기호로서의 사실 ‘p’ 또는 ‘ $\sim p$ ’와 실제 사실 p의 대상들의 짝짓기가 문제가 된다. 그러한 짝짓기 테스트를 통해서 ‘p’가 무의미한 문장이나 단순한 단어들의 나열과 같은 경우는 배제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믿음 작용에 따라 명제 기호로서의 사실 ‘p’ 또는 ‘ $\sim p$ ’와 실제 사실 p 간의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그 문장의 진리치는 “A는 p라고 믿는다”라는 명제 기호로서의 사실과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간의 짝짓기 테스트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A는 p라고 믿는다”는 ‘p’가 객관적인 외적 사실을 보고하는 명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기술하는 명제인 경우, 유아론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명제적 태도 진술은 무의미하며, 그렇지만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간주하였다.

참고문헌

- 박정일 (2015), “『논리-철학 논고』의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에 관하여”, 『철학』, pp. 101-124.
- 이영철 (2016),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책세상.
- 버트런드 러셀 (1989), 『철학의 문제들』, 박영태 옮김, 서광사
- 비트겐슈타인 (2006a),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옮김, 책세상.
- 비트겐슈타인 (2006b), 『청색책 · 갈색책』, 이영철 옮김, 책세상.
- 앤서니 케니 (2001), 『비트겐슈타인』, 김보현 옮김, 철학과 현실사.
- 엄슨 (1983), 『분석철학』, 이한구 옮김, 종로서적.
- 쥘리 피처 (1987),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박영식 옮김, 서광사
- Anscombe, G. E. M. (1959),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 Black, M. (1964),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Cohen, M. (1974), “Tractatus 5.542”, *Mind*, New Series, vol. 83, No. 331, pp. 442-444.
- Copi, I. M. (1958), “Tractatus 5.542”, *Analysis*, vol. 18, No. 5, pp. 102-104.
- Favrholdt, D. (1964), “Tractatus 5.542”, *Mind*, New Series, vol. 73, No. 292, pp. 557-562.
- Hanks, P. W. (2007), “How Wittgenstein Defeated Russell’s Multiple Relation Theory of Judgment”, *Synthese*, 154, pp. 121-146.
- Kenny, A. (1973), *Wittgenstein*, Allen Lane The Penguin Press.
- Kenny, A. (1981), “Wittgenstein’s Early Philosophy of Mind” in

- I. Black(ed.) *Perspectives on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Basil Blackwell. Oxford, pp. 140-147.
- Malcolm, N. (1986), *Wittgenstein: Nothing is Hidden*, Basil Blackwell.
- Mounce, H. O. (1981), *Wittgenstein's Tractatus: An Introduction*, Basil Blackwell, Oxford.
- Perszyk, K. J. (1987), "Tractatus 5.54-5.5422", *Philosophia*, 17, pp. 111-126.
- Pitcher, G. (1964),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 Ramsey, F. P. (1931),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and other Logical Essay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 Russell, B. (1910), "On the Nature of Truth and Falsehood", in *Philosophical Essays*, Simon and Schuster, New York, 1966, pp. 147-159.
- Russell, B. (1984), *Theory of Knowledge, The 1913 Manuscript*,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Russell, B. (1992), *The Principles of Mathematics*, London: Routledge.
- Russell, B. & Whitehead, A. N. (1910), *Principia Mathematica*, volume 1, Merchant Books.
- Sullivan, P. M. (2005), "What is Squiggle? Ramsey on Wittgenstein's Theory of Judgement", in H. Lillehammer and D. H. Mellor(ed.), *Ramsey's Legacy*, Clarendon Press, Oxford, pp. 53-70.
- Urmson, J. O. (1956), *Philosophic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Wittgenstein, L. (1922), *T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C. K. Ogden, London, Bost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LTD..

Wittgenstein, L. (1958), *The Blue and Brown Books*, Basil Blackwell.

Wittgenstein, L. (1961), *Notebooks 1914-1916*, translated by G. E. M. Anscombe,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and Evanston.

Wittgenstein, L. (1979), *Wittgenstein's Lectures, Cambridge, 1932-1935*, A. Ambrose (ed.), Great Books in Philosophy, Prometheus Books.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willsam@sookmyung.ac.kr

The Early Wittgenstein on Propositional Attitude Statements

Jeong-il Park

Wittgenstein asserts in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5.542 that “A believes that p” is of the form “‘p’ says p” and “here we have no co-ordination of a fact and an object, but a co-ordination of facts by means of a co-ordination of their objects.” What does, then, it mean exactly that ‘p’ says p? What are “facts” and “a co-ordination” in the expression “a co-ordination of facts”? Are propositional attitude statements significant propositions or not? Furthermore, what is the point of Wittgenstein’s criticism of Russell’s theory of judgement? In this paper, I will answer these questions on the basis of Wittgenstein’s explication of the concept of thought and Ramsey’s relevant remark on propositional attitude. Meanwhile propositional attitude statements are bound up with solipsism of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and some of them have senses. Hence both of assertions that all the propositional attitude statements are significant and all of them are nonsense in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are not correct.

Key Words: Wittgenstein, Russell, *Tractatus*, Propositional attitude, Theory of judgement, Solipsism.